

채무자 두 번 울리는 ‘미등록 대출 중개업체’ 주의보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로나 19로 실적 후 기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찾던 그는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메신저 등에 ‘직장인 채무통합지원’, ‘채무통합대환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여러 개의 채무를 하나로 합쳐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연계된 금융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업체는 A씨에게 수십 개의 국내 저축은행, 캐피탈 등과 연계해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채무자에게 솔깃한 제안이었다.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과 연계된 것처럼 ‘정부지원’, ‘근로자서민지원’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통합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검색해보니 정식 대출모집법인이나 등록대부업체가 아니었다. 정부와도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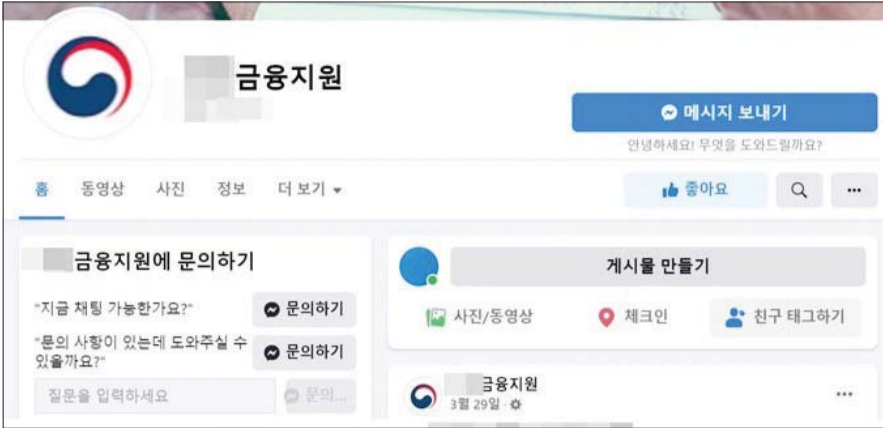
중개 방식·경로 알 수 없어 주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운영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상담 제안 위장 광고, 당장 제재 어려워

채무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정확한 중개 방식이나 경로를 알 수 없고 공공기관을 빙자해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 개인사업자가 수십 개의 저축은행·캐피탈과 연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계약한 공식모집법인(수탁법인)은 수탁 계약을 맺은 저축은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출이 안 나올 경우 타사에 문의해 보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판매를 중개해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중개 경로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진 신용회복위원회 선임조사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나 대출모집인과



정부 로고나 청와대 이미지를 사용해 정부 기관이나 제도와 연계된 듯한 인식을 심어주는 SNS 및 광고.

/권소완 수습기자

연계해 중개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한대출을 끌어 내면서 돌려막기를 유도해 근본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익을 쫓는 사설업체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복위 이 조사원은 “불법 브로커나 유사 바이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포털 최상단에 노출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재기를 돕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것 처럼 오인하게 지은 업체명, 정부 지원과 연계된 것 처럼 위장한 광고 등에 대해서는 당장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채무’, ‘직장인 대출’ 등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업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광고 웹 페이지에 공공기관의 로고나 배너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사나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공식적인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상품으로는 햇살론, 사잇돌2 등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권소완 수습기자 think@metroseoul.co.kr

비슷한 보험 줄줄이… 배타적사용권 유명무실

삼성화재, 지난 3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토스, DB손보 백신보험 사전 모집

일명 ‘보험 특허권’이라고도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 외에도 비슷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등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3월 출시한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특약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삼성화재는 ▲생활밀착형 위험 보장 ▲백신 부작용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강 DB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이란 지난 2001년 처음 보험업계에 도입

됐다.

이후 보험사들의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다. 위의 사례처럼 해당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6개월 등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문제는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금융플랫폼 토스가 DB손보의 백신보험 사전 모집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삼성화재의 사용권 침해라는 입장과 토스의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모집행위 자체도 사용권 침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토스 관계자는 “백신보험 관련 행사는 토스 고객이 백신예약에 관한 알림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이 됐을 때 백신

예약에 더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알림을 드리는 것”이라며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험회도 제3자에 의한 침해 부분에 대한 문구나 관련된 협약이 없어 곤란에 처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보험사가 발생하면 협회는 먼저 위원회를 통해 상품 구조의 유사성과 배타적사용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한다. 이후 배타적사용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되면 우선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최대 1억원 이내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토스의 경우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손보험회 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손보험회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3자를 통한 침해 등 실질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효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포함할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우리은행, 사이버보안 자동대응체계 도입

최신 보안 관리통제 기술 ‘SOAR’

우리은행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에 SOAR(사이버보안 자동대응 체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최신 보안 관리통제 기술인 SOAR는 대용량의 보안 로그와 트래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보안 시스템 운영 시 유입되는 사이버 위협 의심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 정보보안 통합관제 대응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관리통제 효율성을 극대화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영석 기자 ysl@

신한라이프, 출범 기념 ‘놀라운 종신보험’

신한라이프가 건강할수록 더 큰 보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선보였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출범을 기념해 고객이 6대 질병 진단을 받아도, 건강해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신한라이프 놀라운 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한국인의 발병률이 높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만성폐질환 등 6대 질병 진단 확정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한다. 납입면제까지 더해 치료비와 생활비의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6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50% 증액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6대 질병이나 소액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계약 전환을 통해 6대 질병에 대한 보장도 지속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KB금융, 스타프렌즈와 응원 이벤트

‘힘내라! KB’ 이벤트

KB금융그룹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고객과 직원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스타프렌즈와 함께 하는 ‘힘내라! KB’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스타프렌즈는 KB금융그룹의 대표 캐릭터로 최근 KB금융의 모바일 앱, SNS 채널 등에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하

며 고객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비비, 키키, 아거, 라무, 콜리 5명의 스타프렌즈는 KB국민은행 서초동종합금융센터와 노원종합금융센터에서 고객들을 맞았다. 스타프렌즈는 고객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깍과 함께 당신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영업점 1일 로비매니저로 고객 안내 업

/이영석 기자